

차의 시간

인생을 생각하는 시간
마스다 미리 만화



|| 지은이 : 마스다 미리 || 옮긴이 : 권남희

|| 분야 : 만화 || 발행 : 2017년 6월 26일 || 형태 : 148×210mm, 무선제본

|| 편수 : 148쪽 || 가격 : 11,000원 || ISBN: 979-11-86195-99-4 (07830)

“차의 시간은, 문득 떠오른 무언가를 생각하는
인간다운 시간”

이봄

10881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210 || 031-955-2645 || yibom01@gmail.com

문의 : 편집부 고미영 010-6364-1026 마케팅부 031-955-8862

*이봄은 출판그룹 문학동네의 계열사입니다

● 도서 소개

- 『평범한 나의 느긋한 작가생활』을 잇는 마스다 미리 버전의 ‘작가로 산다는 것’

2012년 12월 말, 일본 만화가 마스다 미리의 대표작 ‘수짱 시리즈’가 국내에 상륙했다. 이 시리즈는, 독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공감 속에서 국내에 처음으로 ‘30대 싱글 여성의 삶’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5년이 지났어도 새로운 독자들과의 반응은 한결 같다. “이거 내 이야기잖아.”

여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하나의 장르가 된 ‘마스다 미리.’ 작가의 삶이 이토록 궁금한 적이 또 있을까. 우리의 일상과 생각을 콕콕 집어내는 작가인 만큼, 마스다 미리에 대한 궁금증은 어느 작가에 대한 관심과 케를 달리 한다.

이미 『평범한 나의 느긋한 작가생활』을 통해 마스다 미리는, 아주 평범한 보통의 사람이 어떻게 작가가 되었는지를 그려낸 적이 있다. 이 책은 작가를 꿈꾸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제 막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인생 바이블이 되어주었다.

그리고 이번에 마스다 미리는 『차의 시간』을 통해 ‘마스다 미리 버전의 작가로 산다는 것’을 내놓았다. 이 책은 슬쩍 보면, 카페에서의 에피소드를 나열한 것처럼 보인다. 마스다 미리는 국내의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주로 카페에서 작품에 대한 영감을 얻곤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가장 보통의 사람들의 가장 일상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작가에게, 그는 평범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 그렇기에 이 만화는 마스다 미리의 작가적 습관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나에게 필요한 시간, 멍 때리는 차의 시간

이 만화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의 삶에는 꼭 ‘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카페에서 마스다 미리가 하는 일은 대부분 ‘관찰’과 ‘멍 때리기’이다. 현대인들은 sns라는 온라인을 통해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관계를 만든다. 그렇다면 sns의 오프라인 버전은 무엇일까. 우리가 직접 사람을 만나 소통하는 곳은 어디일까. 마스다 미리는 그것을 ‘카페’에서 찾는다. 현대인들에게 카페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공간인 것이다.

우리는 카페에서 잠시 한숨을 돌린다. 현대인들이 멍 때리는 유일한 순간은 카페에서 온다. 그냥 ‘문득 떠오른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곳. 치밀하게 전략 같은 것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곳. ‘그냥 무언가’를 생각하고 말해도 되는 곳이다.

마스다 미리는 카페에서 ‘문득 떠오른 무언가’라는 삶의 파편에 공을 들인다. 왜냐하면 그것이 삶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느긋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카페에서 잠시 마음을 놓아도 좋다고, 느긋한 작가 마스다 미리는 우리를 또 이렇게 위로해준다.

-카페 에피소드가 한가득

마스다 미리 작품의 특징 중 하나는, 디저트에 대한 디테일한 묘사다. 그는 디저트 에세이를 출간했을 만큼 ‘음식’에 대한 관심을 작품에 끊임없이 반영해왔다. 무엇보다 이번 작

폼이 카페에서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는 만큼, 디저트 이야기가 풍성하게 등장한다. 일본의 유명한 카페와 디저트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마스다 미리의 개인적인 폼평과도 만날 수 있다.

● 작가의 말

차의 시간에 문득 생각한다.
흔히 ‘인생의 반환점’ 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반환점을 찍고 온 사람이 있나?
커피를 마시면서 고개를 갸웃거리다,
가게를 나올 때는 잊어버린다.
그래도 인생에 대해 생각한 오후다.
차의 시간은, 문득 떠오른 무언가를 생각하는
인간다운 시간이었다.

-마스다 미리

● 지은이 소개

마스다 미리

1969년 오사카 출생. 만화가, 일러스트레이터, 에세이스트. 진솔함과 담백한 위트로 진한 감동을 준 만화 ‘수짱 시리즈’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화제의 작가로 떠올랐다. ‘수짱 시리즈’와 더불어 수많은 공감만화와 에세이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일본뿐만 아니라 3~4대 여성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다.

마스다 미리의 대표작 ‘수짱 시리즈’는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걸까?』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아무래도 싫은 사람』 『수짱의 연애』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시리즈는 2012년 일본에서 영화화되었고 2015년 국내에서도 상영되어 관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외에도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한 세 명의 여자 친구들이 주말마다 숲으로 놀러가 도시에 서의 힘든 일상을 치유하는 『주말엔 숲으로』, 고령화 가족을 주인공으로 한 『평균 연령 60세, 사와무라 씨 닥의 이런 하루』, 남녀의 입장차이를 남매라는 관계를 통해 유머러스하게 묘사한 『내 누나』, 아이 없이 둘만 사는 덩크족 부부의 이야기를 다룬 『치에코 씨의 소소한 행복』 등의 만화 시리즈물을 꾸준히 출간하고 있다.

● 옮긴이 소개

권남희

일본문학 전문 번역가.

옮긴 책으로는 마스다 미리의 에세이 『여자라는 생물』 『어느 날 문득 어른이 되었습니다』 『잠깐 저기까지만』 『여전히 두근거리는 중』 을 비롯해 무라카미 하루키의 ‘무라카미 라디오 시리즈’와 『더 스크랩』 『빵가게 재습격』 , 히가시노 게이고의 『질풍론도』 등 다수의 작품이 있다.